

다해·제2312호

연중 제5주일

2025년 2월 9일

춘천교초천교구



 페데리코 바로치
〈성 베드로와 성 안드레아를 부르심〉
1586년경, 캔버스에 오일
벨기에 왕립미술관

목 차

02 말씀의 향기
하필이면

03 평신도 단상
길 위에 있었다

04 특집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 ⁴⁵

05 열린 마당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후원회원
모집



QR코드로 교구소식을!
미사 중에는 자제해 주세요.



천주교춘천교구
www.cccatholic.or.kr

입당송

어서 와 하느님께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네.

제1독서

이사 6,1-2 7,3-8

화답송

◎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 주님, 세상 임금들이 당신 말씀 들을 때,
저들이 모두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 영광 크시오니, 주님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
- 주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제2독서

1코린 15,1-11 <또는 15,3-8.1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

복음

루카 5,1-11

영성체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김재복 모세 신부
목회 본당 주임

하필이면



그때에

하필이면 밤샘 작업을 하고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여,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은 시몬을 찾습니다. 그때에 ‘시몬은 군중과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1절)” 였지만, 시몬은 밤새 그물질을 했으나 고기를 잡지 못해 피곤하여 빨리 그물을 씻은 후 쉬고 싶은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일하고 허탈한 시몬을 만나십니다. **하필이면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위로가 필요할 때 찾아오신 겁니다.**

내 배에

하필이면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물에서 조금 저어 나가” 달라고 하십니다. 다른 배도 있는데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시몬은 배를 내어드립니다.** 시몬의 속은 아랑곳없이 예수님은 군중에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하고 지쳐 쉬고 싶지만, 시몬은 어쩔 수 없이 군중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시몬은 이제 ‘군중과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군중의 일원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때 시몬의 배가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시몬을 말씀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4-5절) 하필이면 잘 잡히는 밤에 잡아도 허탕을 쳤는데, 실패한 그곳에, 더구나 경험상 고기가 잘 안 잡히는 시간에, 다시 잡으라 하십니다. 시몬은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을 따르는 베드로에게 군중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시몬은 청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시몬은 따르기는 하지만 온전히 믿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필이면 지금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지치고 낙심한 시몬을 일으켜 세우고, 믿음을 주실 때였습니다.

죄인인 나를

“주님,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직업(職業, vocation)이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만은 아닙니다. 직업(vocation)은 부르심, 성소(聖召)를 뜻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소명을 깨닫지 못하면 성공해도 공허하여 참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실패해도 좌절감이나 절망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필이면 낙심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시몬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십니다. 시몬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잡니다. 그렇게 시몬은 예수님께 낚였습니다. 예수님의 그물이 되어 사는 제자로서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하느님 나라는 “하필이면 남이 마다하는 일”을 골라서 섬기는 신자들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여정입니다.



길 위에 있었다

길은 프랑스 “생장” (ST. Jean Pied de Port)에서 시작하여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Santiago de Compostela) 대성당까지 약 800km이다. 이 길은 9세기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성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되었다고 알려져 많은 순례객이 오가기 시작했던 순례길이다.

걸음이 늦은 우리 부부는 항상 날이 밝아오기 전에 길을 떠나지만, 여명이 트는 시간 즈음엔 우리보다 늦게 출발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에게 추월당한다. 거의 쉬지 않고 길을 걸어가는 습관이 있다 보니 우리를 추월하여 앞서간 사람들이 길가에서 쉬고 있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 쉬는 곳을 지나쳐 그들을 추월하지만 잠시 후엔 “뽀엔 까미노” (‘Buen’ 은 ‘좋은’ 이라는 뜻이고 ‘Camino’ 는 ‘길’ 을 의미) 하며 그들이 다시 우리를 추월한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사는 바짝 마른 몸매의 매우 날렵한 후안 루이스는 곧잘 우리를 놀리며 추월하곤 하여 그렇게 친구가 되었다. 어느 날 도착한 순례자 숙소에서 후안 루이스와 함께 묵게 되었는데 그는 침울한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와 웃웃을 벗어 배에 삽입되어 있는 관을 보여주며 말했다. 의사가 더 이상 무리하여 걷지 말라고 조언했다며 내일 레온에 도착하면 어머니와 가족이 모두 와 있어 함께 한 코스를 마지막으로 걷고 바르셀로나로 돌아가기로 했단다.

나는 후안 루이스를 붙잡고 펄펄 울었다. 이런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떤 간절함이 있기에 힘든 내색도 없이 이 길 위에 있었던가? 나도 무엇인가를 얻으려 떠난 이 길 위에서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았다” 라고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았다. 바르셀로나에 오면 꼭 들려달라는 루이스와 아쉬운 이별을 하고 다시 길을 걸었다.

32일을 걸어 드디어 내일 산티아고 대성당 도착이다. 12시에 대성당에서 열리는 순례자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일찍 잠을 청하고 꼭두새벽에 길을 떠났다. 오전 10시 40분에 대성당에 도착하였다. 성당에 입장하기 위하여 비를 맞으며 줄을 서서 1시간을 기다렸지만 인원 초과로 결국 성당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비와 함께 눈물이 흘러내린다. 이 길의 마지막 여정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일부러 일요일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잡았는데...! 결국 나는 이 길 위에서 이렇게 감사함과 아쉬움에 두 번을 울었다.

다양한 국적과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 대성당을 향한 길 위에 있다. 이 길은 노란 화살표가 안내한다. “오 세브레이로” 마을에 있는 “산타마리아 성당” (성체 성혈 변모 성당)의 엘리아스 발리나 삼페드로 신부님께서 창안하신 산티아고 순례길의 노란 화살표를 성실히 따라가면 결국 산티아고 대성당에 도착하게 되지만 한눈을 팔거나 다른 생각에 빠지게 되면 결국 길을 잃게 된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가다 보면 산도 넘고 강도 건너야 한다. 이러한 험난한 여정이 우리가 아등바등 살아온 세월 같다. 마음의 준비가 부족하거나 주변의 이웃들을 살펴볼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길을 잃고 만다. 순례길의 노란색 화살표는 마치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 주시는 것 같다. 주님의 길을 잃고 있을 때 침착하게 한걸음 물러서 여유롭게 자신과 주변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노란 화살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지만,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지는 않았다고 한다. 간절하게 무엇인가를 바라고 이 길에 섰던 나는 이미 많은 것을 얻었고 치유를 받은 사람 중의 한 명이었던 것이다.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알게 된 이 길 위에서 희년인 올 해는 내가 아닌 이웃들을 위해 살아가는 순례길을 떠나야겠다. 아멘!

비닐 및 플라스틱 사용 절제하기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최후의 심판>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 ⁴⁵

최후 심판, 새 하늘과 새 땅

글 | 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

소행성 충돌, 핵전쟁, 전염병, 거대한 자연재해 등 영화나 드라마가 그리는 종말의 모습은 대부분 파괴적이며 공포스러운 사건과 함께 찾아옵니다. 재림 예수나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이비 종교들도 대부분 종말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를 자극하곤 합니다. 개인의 죽음이 우리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것과 같이 세상의 종말 또한 하느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미지의 영역인 만큼 여전히 두려운 사건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많아 보입니다.

성경이 전해주는 최후의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어 양과 염소를 가르듯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고,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영원히 벌받는 곳으로 쫓겨나게 되는 사건입니다(마태 25,31-33.46).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선과 악을 판별하는 두려운 심판자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르치는 최후 심판에 관한 성경 말씀의 핵심은 **“은혜로운 때에, 구원의 날에”**(2코린 6,2) **회개하라고 하느님께서 아직도 사람들에게 하시는 호소**(가톨릭 교회 교리서 1041항)입니다.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느님의 정의가 모든 불의를 이긴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040항). 모든 이의 구원을 바라시며 회개하라고 호소하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은 마지막 날에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이 가득한 세상을 만나게 되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듣습니다.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는’**(마태 19,26 참조)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이의 구원을 바라시며, 이에 따라 교회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가운데**(가톨릭 교회 교리서 1058항) 모든 사람의 구원을 희망합니다.

최후 심판 때 사람들은 모두 부활하여 하느님 나라가 존재하는 어딘가 다른 세계로 넘어가고 우리가 살아가던 이 세상은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종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새 하늘과 새 땅”**(2베드 3,13)으로 표현되는, 곧 우리의 육신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도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인류와 이 세상 모두가 하느님의 뜻에 맞게 완성되는 것으로써 인류 공동체는 더 이상 죄와 더러움과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공동체로 새롭게 될 것**이며(가톨릭 교회 교리서 1044~1045항), 우리가 살아간 이 우주 자체도 변화되고, **세상 자체가 최초의 상태로 복원**되어(가톨릭 교회 교리서 1047항) 죄로 이지러진 세상의 모습은 사라지고 정의와 평화가 흘러넘치는 새로운 세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가 언제일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육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 안에서 지금 우리의 육신을 지상 생활 동안 잠시 사용하고 버리는 영혼의 감옥 같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라는 사람을 이루는 중요한 한 부분으로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 또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소중히 돌보아야 할 관심을 오히려 불러일으켜야** 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049항). 하느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에 있으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소중히 돌보고 변화시켜 나감으로써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희망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분명하게 그려나가야 합니다.



QR코드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리서 424~430쪽, 1038~1060항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2009년 2월 16일,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이 선종하셨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사후 각막 기증으로 세상을 볼 수 없던 2명에게 세상의 빛을 선물하시고, 통장 속 잔고 340만 원도 이주노동자를 위해 나누어 주신 김수환 추기경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성직 생활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가난한 이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본당 신부 시절’을 떠올리며,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셨던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가난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아버지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셨던 그리운 김수환 추기경님의 빈자리는 너무도 큼니다.

하지만 빈 자리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나눔**입니다.



한평생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을 실천한 **하느님의 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사랑을 바보의 나눔이 이어갑니다**

바보의나눔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셨던 김수환 추기경님의 뜻을 이어 인종, 국가, 종교, 이념을 초월하여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웃을 돕는 전문모금기관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모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의 기회가 적은 아이들에게 배움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홀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어르신, 자립을 준비하는 장애인, 가족을 책임지는 여성 가장, 낮은 한국 생활을 적응해 가는 이주민, 해외 저개발 국가의 아이들까지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의 곁에서 바보의나눔이 함께 하였습니다.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가진 것을 나누어 주신 여러분의 소중한 사랑이 모여서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것이며, 그런 세상을 위해 바보의나눔이 함께 하겠습니다.
나눔으로 함께해 주실 여러분께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으로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세상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바보의나눔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손을 잡아 주세요!

정기기부 신청방법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정기기부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부 문의

02-727-2506~8, 2510
babonanum@babo.or.kr
www.babo.or.kr

교구 소식 및 교회 알림

견진성사

임당동 본당: 2. 9.(주일) 10:30
퇴계 본당: 2. 19.(수) 19:30

재무평의회

2. 13.(목) 16시, 교구청 대회의실

양구 본당 사목 방문

2. 14.(금)~16.(주일)

교구 일정

송별 미사: 2. 16.(주일)
인제인수, 파견전례 및 임명장 수여: 2. 18.(화)
10시, 교구청 대회의실
소임지 부임: 2. 20.(목)

교구 직원 채용 공고

근무지: 춘천교구 예수 성심 영성원
모집인원: 약간 명
업무내용: 주방, 청소 및 빨래, 시설 관리
제출서류: 이력서(경력사항 상세 기재), 본
당 신부 추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진단서, 관련자격증사본(소지자에 한
함),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면접일시 개별통보)
제출기한: 2. 28.(금)
제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제출처: 춘천시 공지로 300 천주교 춘천
교구청 교구 법인 담당(우편번호 24338)
☎ 033-240-6022, 6029 문의

공 토마스 신부 16주기



생년월일 : 1919. 10. 31.
서 품 일 : 1943. 12. 21.
선 종 일 : 2009. 02. 19.

교구 제단체·모임·미사·피정·교육

초등부 복사단 전례 캠프

2. 10.(월)~11.(화) 가톨릭회관

상반기 교리교사 양성교육 (영동, 영북지구)

2. 15.(토) 영동가톨릭사목센터

2025년 1학기 '여정' 수강자 모집

과목: 마르코복음 / 기간: 2. 24.(월)~6. 17.(화)
비대면: (월) 19~21시 / (화) 10~12시
대면: 교구교육원 또는 가톨릭회관 (수) 19:00~
20:40 / 포천 (금) 10:50~12:30
신청: 본당사무실 또는 개인
수강비: 비대면 3만원 / 대면 4만원 /신탁
131-010-215773 재단춘천교구천주교회
마감: 2. 12.(수)까지
☎ 033-240-6020 성경사목부

1학기 명도학당 대면·비대면 강좌 안내
-은총을 얻는 그리스도인의 삶

강사: 기정만 예제키엘 신부 / 박종수 요한
세례자 신부 / 특강: 김도형 스테파노 신부
강의기간: 3. 10.(월)~5. 19.(월) 10주
접수기간: 2. 2.(주일)~2. 23.(주일) 기일업무
대면(월 19시, 가톨릭회관), 비대면(유튜브) 병행
수강료: 2만원(신탁 131-018-771156 평협)
신청: 본당사무실 (대면, 비대면 반드시 구분,
개인 신청시 010-6318-6002로 문의 후 카
톡 또는 문자 접수 가능)
할인특전: 성직자, 수도자 면제
☎ 010-6318-6002 문의 춘천평협

체나콜로 모임과 월미사

2. 15.(토) 10~13시, 효자동 성당
미사: 11시, 조영수 마태오 신부
☎ 010-3669-2076

춘천 교정봉사회 봉사자 모집

남사: 매 (목) 15시
여사: 마지막 (화) 15시
☎ 033-264-5011 한삶의집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감사

2. 12.(수) 9시

레지아 Co.Cu. 단장 교육 연수

2. 15.(토)~16.(주일) 고성까리따스파정의집

평협 월례회의

2. 15.(토) 15시, 말당회관

행복한 가정과 부부를 위한 146차 ME 주말

2. 14.(금)~16.(주일), 가톨릭회관
대상: 결혼 3년 이상 부부, 비신자, 신부님, 수도자
신청: 본당 사무실, ME 대표부부
☎ 010-5579-6826, 010-8242-8018

3월 카나 혼인 강좌

3. 29.(토) 18:30, 애막골 성당
대상: 결혼을 앞둔 부부/관면혼배를 위한 부부
☎ 033-240-6095 가정생명환경부

렉시오 디비나(성독, 거룩한 독서)

2. 11.(화) 10~17시까지, 가톨릭회관
대상: 한번이라도 렉시오디비나의 강의를
들으신 분은 모두 초대함
지도: 김택신 신부 / 미사: 16시
참가비: 1만원(점심포함)
☎ 010-9345-5593

본 당 알 림

2월 하느님 자비의 기도모임

2. 17.(월) 13~16시, 임당동 성당
기도하고 싶은 누구나 / 강의, 성시간, 고해
성사, 미사 / 매월 세번째 월요일

인 준 시 설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채용

분야: 전일제 청소년 동반자
서류: 2. 13.(목) 18시까지/면접: 2. 17.(월) 14시
상세내용 홈페이지(www.8181388.co.kr)
☎ 033-818-1389

성소모임 / 성소모임은 수시로 신청받습니다.

착한목자수녀회	수시	서울 자양동 수녀원(건대입구역)	010-7197-1390	한사람은 온세상보다 소중합니다
천주의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2. 15.(토) 14시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 033-647-6063(강릉 임당동)
☎ 033-531-7887(동해 묵호동)
우명숙 글라라 · 김길영 마르티노

타파웨어 춘천 중앙점

무공해 무독성 김치통, 냉장 · 렌지용기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타파웨어
정수기, 혼수용품
중앙시장 제일백화점 2층
☎ 010-9042-3638 김소정 안젤라

#춘천 모든 굴삭기
불도저 렌탈(임대)

토목, 조경, 보강토, 토사운반, 불도저
경지정리 등, 각종 난공사, 무료 견적
☎ 010-6311-7989
최찬욱 요한 · 이은경 테오도라

봄내베이킹

케이크 주문 제작 / 강습
네이버검색 봄내베이킹
☎ 010-9285-0792
임정빈 미카엘라 · 전정구 베드로

2025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따른 안내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종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 2025년부터 소득세법 제160조의3 4항의 근거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의 수기 발급(종이 기부금영수증, 본당양업상 출력 포함)이 불가합니다(2024년도분까지 출력은 가능). 따라서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은 간소화 동의한 신자의 기부금과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분에 한해서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업명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업명의 기부금영수증은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만 발급 가능하며 교구에서 매월 10일 기준으로 등록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부자 변경 불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기부금 수납 현황을 국세청에 주기적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수납 이후 납부자 및 책정자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2025년도에 납입한 기부금 중 납부자 및 책정자 변경이 필요한 건(납입자 및 책정자 착오)에 대하여 2025년 2월 말일까지 본당 사무실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변경(납부자 및 책정자 변경, 개인기부금을 기업명의로 변경) 처리가 불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기부자 본인 명의로 발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드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기부자 명의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반 알 림

가톨릭 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 3. 24. 이탈리아 알프스 프랑스 11일(500만원)
 - 4. 23. 튀리키에 그리스 12일(525만원)
 - 5. 3. 동유럽 발칸 메주고리에 15일(575만원)
 - 5. 20. 유럽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2일 (525만원)
- ☎ 010-5235-3533 www.catholictravel.co.kr

“잠시멈춤”청년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 2. 17.(월) 19:30, 한삶의 집 1층(거두리)
 - 대상: 남, 여 청년(미혼)
- ☎ 카톡채널 착한목자수녀회

가톨릭춘천신협

문화아카데미 1학기 수강생 모집

- 2. 17.(월)~21.(금) 선착순 마감
 - 수강료 2만원 / 필요물품(악기 등) 개인준비
 - 조합방문접수(전화, 인터넷 불가)
- ☎ 033-255-6742(내선 3)

가톨릭춘천신협 출자배당 안내

교우 여러분의 꾸준한 이용에 힘입어

2024년 출자배당 **4%**

이용고배당금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5천여만 원(배당을 환산
4.40%)을 배당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가톨릭춘천신협 본점(죽림동) 033-255-6742
지점(거두리) 033-262-6742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예수회] 수도생활 체험학교

나이들, 새로운 소명: 지나온 삶을 성찰, 노년을 의미 있고 충만히 하는 프로그램
일정: 3. 17.~26./4. 21.~30./5. 12~21./6. 9~18. (10일, 100만원)/장소: 홍천/대상: 60세 이상
☎ 010-7451-9707 문의

예수회후원회 성지순례

- 3. 14. 이태리 수도원 및 명소 탐방 (12일) 560만원
 - 3. 28. 터키, 그리스(사도바오로 발자취)(12일) 480만원
 - 4. 8.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5만원
 - 5. 6.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12일) 560만원
 - 6. 3. 초기교회 발자취(조지아, 아르메니아)(10일) 470만원
 - 7. 4. 성모 발현성지 4개국(12일) 560만원
- ☎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가톨릭관동대학교

평생교육원 25학년도 봄학기 수강생모집

- 1. 20.(월)~2. 14.(금), 커피바리스타 자격증과정 등 37개 강좌 / 접수: 가톨릭관동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lifelong.cku.ac.kr 접속 후 수강신청

제주 3박4일, 전국 167곳 성지순례

제주 (38만원), 전국 2박 3일 (30만원)
베트남, 마카오 성지순례 3박 5일 (120만원)
일본 북해도, 나가사키, 아키타 3박 4일 (120만원)
☎ 010-4239-1929 마르코투어

예수회센터 봄학기 비대면 강좌/3월 개강

비대면 실시간 동영상(ZOOM, 구글미트) 강좌
-영성과 철학상당: 아픈 영혼을 '철학'으로 치유하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12주 과정
-하늘씨앗 깨어나기(영성수련)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19:30~22:00, 13주 과정 (금요일반은 20~30대 청년대상)
☎ 02-3276-7733 신청 center.jesuit.kr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위성 TV 184번 / olleh tv 231번 / B tv 307번 / U tv 274번

평화 장례를 돕는 사람들(춘천)

힘들고 어려운 장례 후불제로 진행
(제휴 장례식장 할인)
묘지관리 · 이장 · 벌초/무엇이든 물어보세요(전국 어디나 가능)
☎ 010-2678-9789 홍성식 토마스

함경도 아바이 젓갈(속초)

한국인의 밥상 KBS 1TV 촬영
가자미식해 촬영지 / 가자미식해,
명란, 창란, 오징어젓갈, 각종 젓갈
☎ 632-6561, 010-3341-0470
양수근 임마누엘 · 박순옥 임마누엘라

춘천 장례식장

검안의 상시 대기
교구 협약 특별혜택
☎ 010-4479-4414
이성범 요셉 사무국장
전국장례지도사연합회

MZ에스테틱

피부관리에 관심있는 분 전화주세요
100%예약제 / 첫 손님 20%할인
춘천시 춘주로 55(3층)
☎ 010-2506-9913
한민지 효주아네스 · 홍승후 켄마

속초 나드리 여행사

페낭, 쿠알라, 말라카 / 베트남
다낭, 후에, 짜기우 3박 5일 / 터
키 일주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7대교회, 에페소, 이즈밀
☎ 010-5373-8181 어일흔 느헤미야

대건 건설·조경·중기

각종 굴삭기, 덤프 임대
토목 · 택지 · 조경 공사 · 객토
☎ 010-5361-5641
한성근 대건안드레아 · 최순화 가브리엘라

스타키보청기

청력검사/ 난청상담/ 보청기상담
춘천 이마트 건너편 위치
☎ 033-251-3131
김형근 프란치스코

산골농장 흑염소 건강원

"청정 양구" 자연 방목 흑염소
"30년 전통"의 농장 직영 건강원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 010-6443-4811
신양순 다리아